

취업자 수 증감의 원인 및 전망

성재민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11월 취업자 수 33만 9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
- ◎ 전달보다는 다소 증가폭이 커졌지만(10월 278천 명), 연초부터 지속된 노동시장 둔화 흐름 안에 있음. 원인은 다음과 같음
 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 :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에 기여했던 50대 연령층 인구 증가폭 둔화(2014년까지 20만 명대 유지했으나, 이후 꾸준히 인구 증가폭 줄어 2016년 11월 106천 명 ↑)
 - (2) 최근 특징 :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활력 감소 등 2016년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. 건설업을 제외한 경기둔화 영향을 반영
 - (3) 이번 달 특징 : 임금근로자 증가폭 186천 명으로 매우 둔화되었으나,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고용 증가(141천 명) 및 2016년 내내 생산활동이 활발한 건설업 취업자 증가(111천 명) 등으로 인해 33만 9천 명 고용 증가 나타남
- ◎ 고용률은 61.1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증가(15~64세 고용률은 66.6%로 0.3%p 상승)
 - 실업자 수는 85만 4천 명으로 25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(3.1%)은 전년동월과 동일
 - 20대 실업자 1천 명 감소

- ◎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
- ◎ 연령별로 볼 때, 6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(316천 명 ↑)하는 가운데, 청년층 고용이 19천 명 감소
 - 50대 : 인구 증가폭이 둔화(107천 명 ↑)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 113천 명 ↑
 - 50대 초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43천 명 감소하였으며, 취업자 수는 14천 명 감소. 반면에 50대 후반은 전년동월대비 인구가 150천 명 증가하였으며, 취업자 수도 127천 명 증가
 -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316천 명 증가하였으나, 이는 전년동월대비 476천 명 증가한 인구변화 영향
 - 20대는 그간 취업자 수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음식숙박업 감소 전환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16천 명 감소
 - 고졸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은 음식숙박업(2천 명 ↑)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, 대신 건설업(8천 명 ↑)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3천 명 ↑)에서는 33천 명 증가(지난달 71천 명에 비해 둔화)
 - 전문대 이상 졸업자(재학, 휴학, 중퇴는 제외)는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18천 명 ↑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0천 명 ↑) 등에서는 증가했으나, 교육서비스업(24천 명 ↓), 제조업(37천 명 ↓) 등에서는 감소하여 30천 명 취업자 수 감소
 - 30대, 40대는 인구 감소(각각 90천 명, 58천 명 감소)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(각각 26천 명, 45천 명 감소)

- ◎ 상용직 증가폭 둔화로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크게 둔화
 - 상용직 종사자 증가폭은 2016년 들어 둔화해 2016년 11월 전년동월대비 29만 7천 명 증가(2015년 하반기 521천 명 증가)
 - 특히 제조업 상용직은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이어왔으나 2016년 7월(57천 명 ↓) 감소로 전환한 이후 8월(97천 명 ↓), 9월(94천 명 ↓),

10월(111천 명↓), 11월(94천 명↓) 감소

- 임시직 14만 7천 명 감소, 일용직 3만 7천 명 증가
- 임금근로자 증가폭 186천 명↑으로 크게 둔화된 상태

◎ 자영업자 증가 전환

-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3만 9천 명 증가
- 무급가족종사자도 11천 명 증가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(28천 명↑) 외에도 건설업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(11천 명↑)에서도 증가하였고, 도소매업(12천 명↑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21천 명↑), 농림어업(20천 명↑)에서도 증가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(12천 명↑), 도소매업(10천 명↑), 제조업(20천 명↑), 부동산 및 임대업(14천 명↑)에서 증가

◎ 제조업 고용 5개월째 감소 지속된 반면,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

- 구조조정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던 제조업에서는 7월부터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(7월 65천 명↓, 8월 74천 명↓, 9월 76천 명↓, 10월 115천 명↓, 11월 102천 명↓)
 - 특히 40대(75천 명↓)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, 30대 66천 명, 20대 초반 61천 명 감소
 -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(56천 명↓), 장치기계조작원(42천 명↓), 사무종사자(26천 명↓)에서 주로 감소
- 서비스업은 311천 명 증가하여 2016년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던 흐름이 주춤
 - 음식숙박업(전년동월대비 74천 명↑)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85천 명↑)을 필두로 부동산 및 임대업(35천 명↑) 등에서 증가
 - 음식숙박업은 주로 업종 소분류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

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

- 5개월째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가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판매직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전속 보험 대리점업으로 불리는 GA 판매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
- 올해 들어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진 건설업 취업자 수는 7월에 전년동월대비 1천명 증가한 뒤 증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(8월 71천 명 ↑, 9월 41천 명 ↑, 10월 59천 명 ↑, 11월 111천 명 ↑)
- 이미 상용직은 건설생산과 동조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, 일용직 감소 지속 영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음. 그러나 8월 증가 전환(36천 명 ↑)에 이어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(9월 40천 명 ↑, 10월 69천 명 ↑, 11월 120천 명 ↑)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 전환된 것임
- 일용직은 외국인 고용의 영향 등으로 생산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있지만, 올해 하반기를 넘어 건설업은 생산이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건설업 부문 고용도 하반기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
- 건설업 생산 활발의 영향으로 부동산업도 증가폭이 늘어난 상태. 다만 분양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어 부동산업 증가가 지속될지는 지켜보아야 함